



중국리포트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国 上海市 长宁区 遵义路 100号 南丰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 18-6 호
 2018년 3월 23일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만 TE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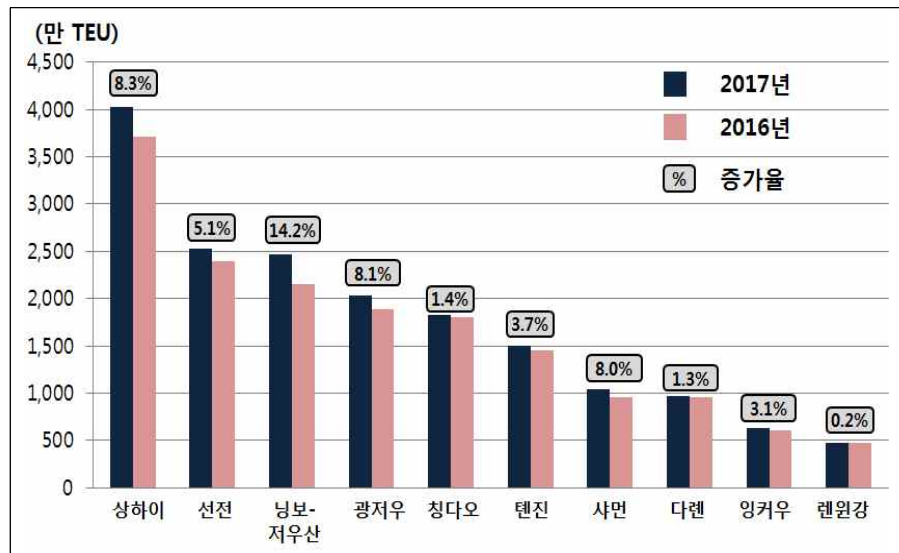
	항만	물동량	증가율
1	상하이항	4,023	8.3
2	선전항	2,521	5.1
3	닝보·저우산	2,464	14.2
4	광저우항	2,037	8.1
5	칭다오항	1,830	1.4
6	톈진항	1,506	3.7
7	샤먼항	1,038	8.0
8	다롄항	971	1.4
9	잉커우항	628	3.1
10	렌윈강항	471	0.2
	합계	17,489	6.6

자료 : 「중국항구」 2018년 2월호.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를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주 : 연해항만 기준, 2017년 쑤저우항(내하항)의 물동량이 588만 TEU로 렌윈강항보다 많음.
 자료 : 중국항구협회, 「중국항구」 2018년 2월호, p.15. ; KMI 작성

2017년 중국 10대 항만 컨테이너물동량 전년대비 6.6% 증가

2017년 중국 규모이상 항만의 컨테이너물동량은 총 2억 368만 TEU로 전년대비 8.3% 증가했으며, 이중 중국 10대 항만(연해항만)의 물동량은 1억 7,489만 TEU로 전년대비 6.6% 증가했다.

항만별로는 상하이항이 전년대비 8.3% 증가한 4,023만 TEU로 사상 최초로 4,000만 TEU를 돌파하며 세계 1위 컨테이너항만 자리를 고수했다. 또한 선전항은 2016년도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벗어나, 2017년 전년대비 5.1% 증가한 2,521만 TEU로 2위를 차지했으며, 3위인 닝보·저우산항(2,464만 TEU)은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중 전년대비 증가율이 14.2%로 가장 높았다. 그 외 광저우항은 최초로 2,000만 TEU를, 샤먼항은 1,000만 TEU를 돌파하였으며, 이로써 중국은 1,000만 TEU 이상 처리한 7개 항만(홍콩 포함 총 8개)을 보유하게 되었다.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의 순위 변화는 없었다.

2018년에도 세계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에 따라 중국의 수출입 무역도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중국사회과학원은 2018년 중국 수출입 총액 증가율을 7.2% 수준(2017년 증가율 14.2%)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항만의 컨테이너물동량도 6.5%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구분	01-05	03-23
종합지수	773.28	788.74
일본 항로	678.52	732.36
구주 항로	1,055.59	1,041.07
미서부 항로	612.18	610.12
미동부 항로	783.03	837.89
한국 항로	614.11	586.93

주 : '01-05' 2018년 1월 5일 지수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구분	01-05	03-23
종합지수	1,387.18	1,064.33
석탄	1,441.08	1,098.99
곡물	1,464.37	865.62
금속광석	1,521.19	1,051.87
정유	1,521.19	1,264.90
원유	1,541.72	1,541.72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지난 3월 3일부터 20일까지 중국 한 해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¹⁾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양회'는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천명한 '새로운 시대'에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어느 '양회'보다 더욱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국가 주식 임기의 5년 연임 제한 조항 삭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중국 최고의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인사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국무원 조직개편 방안이 발표되는 등 어느 때보다 굵직한 '정치적 이슈'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금번 '이슈 포커스'에서는 2018년 '양회'에서 발표된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 대표들의 관련 의안(议案)·제안(提案)²⁾, 기타 관련 기자회견들을 토대로 2018년 및 '새로운 시대의 중국 해양수산' 이슈 및 정책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2018년 중국 경제성장률 약 6.5% 수준 목표

2018년 중국 정부의 경제·사회 목표 및 정책방향이 수록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2018년 GDP 성장 목표치를 6.5% 내외로 2017년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2017년 성장률 6.9% 달성). 2017년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주요 경제지표의 목표치들이 대부분 초과 달성하였는데, 2018년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는 2017년 목표치와 동일 혹은 다소 낮게 설정되었다([표 1] 참조).

[표 1] 2018년 중국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교통·운송 관련 중심)

구분	2017년 목표	2017년 달성	2018년 목표
GDP 증가율(%)	6.5 내외	6.9	6.5 내외
CPI 증가율(%)	3.0 내외	1.6	3.0 내외
도시 신규 취업자(만 명)	1,100	1,351	1,100
도시 실업률(%)	4.5 이하	3.9	4.5 이하
무역 증가율(%)	안정적 수준으로 회복	14.2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철도 투자(억 위안)	8,000	8,010	7,320
도로 투자(억 위안)	18,000 (수운 포함)	22,700	18,000 (수운포함)
철강 생산능력(만 톤)	약 5,000	(지난 5년간) 17,000	약 3,000
석탄 생산능력(만 톤)	약 15,000	(지난 5년간) 80,000	약 15,000

자료 : 중국 국무원, 「2017년-2018년 정부업무보고」 및 관련 통계자료.

- 1) '양회(两会)'란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중국 경제·사회의 발전 방향, 정부 예산, 경제성장률 및 각 분야의 정책들을 제시·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임. 필자 주.
- 2) '양회'에서는 '의안(议案)'과 '제안(提案)', '건의(建议)' 등의 안건을 발의하는데, '의안'은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들이 발의하는 안건(대표단 혹은 30명 이상의 대표가 공동 발의), '제안'은 정치협상회의의 대표들이 발의하는 안건(대표 단독 발의 가능)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필자 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화'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본 2018년 중국 경제의 주된 방향은 지속적인 '공급측 개혁' 추진 및 '질적 성장' 패턴으로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공급측 개혁'과 관련하여,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전년대와 마찬가지로 철강 생산 3,000만 톤, 석탄 생산 1억 5,000만 톤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되었다. 기업비용 경감도 제시되었고 여기에는 도로통행료 등 물류비용 인하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형 국가 건설'을 강조하고 있으며, 내수 소비 진작과 공공부분 인프라 투자 확대도 제시되었다. 2018년 철도·도로·수운 등 교통인프라 투자 계획 규모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의 지속적인 축소를 통한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자유무역항 등의 보다 확대된 개방정책 추진 등 대외개방 수준 제고가 강조되고 있다³⁾.

2 해운·항만·물류 분야 주요 내용

1) 전면적인 개방 심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전국범위로 확대

금번 「정부업무보고」에는 '전면적인 개방의 새로운 국면 조성'이 중점 과제로 들어갔다. 올해에는 국제 일류 수준의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일반 제조업을 비롯하여 통신, 의료, 교육, 양로, 신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의 개방과 은행, 증권, 펀드매니저, 선물, 금융자산관리 등과 관련한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취소하거나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그간 축적해온 자유무역시범구의 노하우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통관 시간의 1/3 단축 추진 등 무역 편리화도 강조되었다. '양화'에 참석한 각 대표들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개방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6일, 닝지저(宁吉喆)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중국은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국 범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자기업과 중국 현지기업의 공정한 경쟁 실현 및 외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격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닝지저 부주임은 UNCTAD 조사 결과를 빌어 현재 중국이 외국기업 투자지역 선호도에서 2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을 통한 외국자본 진입 제한 완화, 서비스산업 개방 확대, 외자기업 설립 수속 간편화 및 소방, 환경평가, 토지사용, 통관 등 관련 행정 심사와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중서부·동북 등 내륙지역 이전 외국기업에게는 지원금 및 토지사용 혜택을 제공하고, 외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시 세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⁴⁾.

3)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중국 정부의 중점 추진 업무는 ①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추진, ② '혁신형 국가' 건설 촉진, ③ 기초적 관건부분의 개혁 심화, ④ '3대 공방전(三大攻坚战, 금융·채무리스크 방어, 환경오염, 빈곤구제)'의 견지, ⑤ 농촌 진흥 전략 적극 실시, ⑥ 지역협력 발전전략의 건설한 추진, ⑦ 적극적인 내수 진작 및 효과적인 투자 촉진, ⑧ 전면적인 개방의 새로운 국면 조성, ⑨ 사회보장 제고 및 민생 수준 개선임, 국무원, 「2018년 정부업무보고」, 2018. 3.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화'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2) '일대일로' 전략과 해운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 촉진

2013년 '일대일로' 전략이 등장한 후 매년 '양화'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이 중심 소재로 자리잡았다. 금번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일대일로(一帶一路)'란 어휘가 총 5차례 등장하였다(2017년에도 5회 언급). 「정부업무보고」에서는 2017년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의 성과들을 중점 이행할 것이라고 제시했으며⁴⁾, 국제 대통로 건설 및 연선국가들의 통관 협력 등 하드·소프트웨어 협력을 통해 중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업무보고」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1~11월 동안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 간의 교역액은 9,83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5.4% 증가했으며, 새로 체결한 프로젝트 수주액은 1,135억 달러로 13% 증가했다. 반대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중국 직접투자액은 5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3,500개의 기업이 신설되었다⁵⁾.

중국 해운·물류기업들의 '일대일로' 전략 부응도 눈에 띈다. 전인대 대표인 COSCO SHIPPING 쉬리룽(许立荣) 회장은 금번 '양화'에서 상하이의 '국제해운 중심 건설'과 '일대일로' 전략을 연계 추진하고 창장경제벨트의 기능을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까지 COSCO SHIPPING은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컨테이너선 180척, 선복량 총 114만 8천 TEU를 투입하였고, 이는 자사 총 선대 규모의 61.8%를 차지한다. 현재 '일대일로' 연선국가 항로 13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 선복량 13만 2천 TEU에 달한다⁶⁾. 또한 쉬리룽 회장은 상하이의 '국제해운중심 건설'을 추진하려면, ① 상선(商船) 선대 구축을 추진해야 하며, ② 화물 집산 네트워크 및 해·철 복합운송을 강화해야 한다. ③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경영환경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④ 통관 인프라 건설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통관 편리화와 서비스 품질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⁸⁾. 현재 COSCO SHIPPING은 해운업무를 기반으로 해운금융, 금융리스, 종합물류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인대 대표인 중국창장항운그룹(시노트란스CSC)의 장루이(张锐) 회장 역시 기자회견에서, 초상국그룹(2016년 시노트란스와 초상국 합병)은 적극적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항만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항만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PPC(Port-Park-City) 항만 상업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⁹⁾.

실제로 최근 지난 2018년 2월 초상국그룹은 브라질 파라나구아(Paranagua)

4) 中国新闻网, “发改委: 2018年将把自贸区外商投资负面清单逐步扩大到全国”, 2018. 3. 6.

5) 2017년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포럼'에서는 '정책소통(政策沟通)', '인프라 연통(设施联通)', '무역창통(贸易畅通)', '자금융통(资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의 5개 분야에 총 270여 개의 구체적인 성과들이 도출됨,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주.

6) 大陆桥视野, “2017年“一带一路”建设成果丰硕: 贸易投资稳步提升 重大项目陆续落地”, 2018. 3. 19.

7) 2016년 2월, 중국 양대 국양 선사인 COSCO와 CSCL은 합병되어 중국원양해운그룹(COSCO SHIPPING)으로 새롭게 설립되었고, 통합된 COSCO SHIPPING은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초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 및 해외항만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필자 주.

8) 第一财经, “人大代表建言国际航运中心对接一带一路, 上海要加强海铁联运”, 2013. 3. 7.; 上海发布, “全国人大上海代表团全团审议对中外记者开放”, 2018. 3. 7.

9) sohu, “锚定世界一流海洋港口新坐标”, 2018. 3. 15.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화'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항만의 90% 지분을 인수하며 남미까지 진출했고, 전세계 20개 국가에 52개 항만 터미널을 운영 중에 있다¹⁰⁾.

3) 녹색해운, 창장항운 오염관리 강화, 창장녹색경제벨트 건설

창장 '황금수로' 건설에 따른 창장 수운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이에 따라 창장의 오염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금번 '양화'에서 용청한(雍成瀚) 안후이(安徽)성 츠저우(池州)시 부서기는 창장유역 조정 및 관리체제를 완비하고 지역 간, 부서 간의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친환경선박 건조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인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예를 들어 LNG 병커링과 부대시설 건설 및 LNG 선박 보조금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선박오염종합예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¹¹⁾.

루용쥬(陆永泉) 장쑤성 교통운수청 청장은 국가가 LNG 동력선박 개조 보조금을 제고해야 하며, 내하 LNG 병커링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규정책 연구 및 제정을 통해 기준에 따른 용지 수속, 기술규범 및 심사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중국 교통운송 분야의 에너지 소비량에서 LNG 동력선박 소비량은 11%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내하 LNG 동력선박 비중은 약 1% 수준으로 대부분 내하선박은 여전히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다¹²⁾.

장세방(张世方) 저장성 닝보시교통운송위원회 주임은 최근 몇 년 동안, 창장-닝보-저우산항의 지선 물동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7년에 12만 TEU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창장-상하이 지선 연간 물동량 1,000만 TEU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교통운수부는 「특정항로 강·해직항(江海直达) 운송 발전에 관한 추진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동 「의견」에 따르면, 창장간선-닝보-저우산항의 건화물선 및 특정 선형 우선 개발을 제시했지만, 창장간선-닝보-저우산항의 강·해직항 선박은 포함되지 않았다. 닝보-저우산항은 심수부두, 양질의 서비스 및 편리한 환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어 유리한 강·해직항 운송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동 구간의 강·해직항 컨테이너선형 개발 및 특정 항로 지정을 통해 상하이 양산항의 혼잡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창장경제벨트의 발전을 더욱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¹³⁾.

4) 중국 각 지역 '자유무역항' 건설 붐

「정부업무보고」에서는 2017년 10월 개최된 제19차 중국공산당 당 대회에 이어서 재차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을 제시하면서 '자유무역항'은 중국 개방개혁의 새로운 이슈로 국내외의 주목을 끌고 있다. 금번 '양화'에서도 자유무역항 건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전인대 대표인 푸젠자유무역구 종합연구원 황마오싱(黄茂兴) 원장은 3

10) 光明网, "一带一路"倡议在拉美: 中国企业收购巴西第二大集装箱码头", 2018. 2. 25.

11) 澎湃新闻, "雍成瀚代表: 加强长江航运污染治理, 建设长江绿色经济带", 2018. 3. 9.

12) 人民日报, "陆永泉代表(江苏省交通运输厅厅长)", 2018. 3. 19.

13) 中国交通新闻网, "全国人大代表张世方: 扩大特定航线江海直达运输范围", 2018. 3. 7.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월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자유무역시범구를 지속 심화시켜나가는 기반 하에서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싱가포르, 두바이, 독일의 함부르크 등 세계 자유무역항의 성공 사례를 보았을 때, 자유무역항은 ① 높은 수준의 기준·규칙에 대한 벤치마킹, ② 투자 자유, 무역편리화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 ③ 인력 및 자금 등 생산요소 배치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인력, 자금 등 생산요소의 자유 유동을 위해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인대 대표이자 푸젠성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전 부주임을 역임한 예상위(叶双瑜)는 역시 자유무역항 건설을 신속히 실행해야 된 다며, 먼저 실행에 옮겨야지만 방안에 대한 모색이 가능하다고 건의했다¹⁴⁾.

한편 2017년 이미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개혁개방 방안」을 발표하여 자유무역항 건설을 공표한 상하이를 필두로 하여, 저장성, 광둥성, 텐진시, 다롄시, 쓰촨성 등이 '자유무역항' 건설을 제창하고 있으며 다롄시의 경우 금 번 '양회'에서 '다롄시 전국 최초 자유무역항 건설 지지에 관한 건의'를 제출 하기도 하였다¹⁵⁾.

5) 기업들의 비용 및 물류원가 절감

「정부업무보고」에는 '공급측 개혁'의 일환으로 기업 부담 절감을 제시했다. 특히 제조업, 교통운송업의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를 제시했고, 또한 물류기업 의 창고용지 세수 특혜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유료 도로의 도로비용 징수 제도 개혁이 더욱 심화되어, 도로 및 교량 이용료를 절 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물류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방면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자, 교통운수부 당서기인 양환탕(杨传堂)은 「유 료도로 관리조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작년에 전국 범위에서 2급 도 로 통행료를 취소했으며, 그 절감 비용은 약 17억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¹⁶⁾.

이 밖에 금년 3월 전국 양회 개최를 앞두고 2018년 1~2월 중국 31개 성·시에 서는 지방 '양회'를 개최하였고, 각 지역들은 지리적 위치 및 산업 특성에 따라 자체적인 물류산업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3 해양 분야 주요 내용

1) 국가해양국 자연자원부로 통합, 환경보호 및 해경 기능 등은 분산

금번 '양회' 중 가장 주목을 받은 이슈 중 하나는 '국무원 기구의 개혁방안 (이하 '국무원 조직개편안')이다. 3월 13일, 제13회 전인대 제1차 회의 제4차 회 의에서 국무원 조직개편안이 심의에 상정되었고, 3월 17일 표결·통과되었다.

동 국무원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국무원의 정부급(正部级, 장관급 기구) 기구

14) 中国新闻网, "代表热议自贸港建设: 对标国际 错位发展", 2018. 3. 9.

15) 中国经营报, "自由贸易港竞争部分选手名单", 2018. 3. 23.

16) 南方日报, "降低路桥费用要防止一刀切", 2018. 3. 9.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 신설된 자연자원부의 임무

– 조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국토자원부의 임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체기능구 계획 임무, ▲주택 및 도농 건설부의 도농 계획관리 임무, ▲수리부(水利部)의 수자원 조사 및 '토지확보권(确权)' 등기관리 임무, ▲농업부의 초원 자원 조사 및 '토지확보권' 등기관리 임무, ▲국가해양국의 임무, ▲국가지리측량제도정보국의 임무를 통합함.

■ 신설된 생태환경부의 임무

– 기존의 ▲환경보호부의 임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감축 임무, ▲국토자원부의 지하수 오염 방지와 감독 임무, ▲수리부의 수자원기능구(水功能区)계획 편성 임무, 오염배출구 설치·관리 직책, 수역 환경보호 직책, ▲농업부의 농업 면원(面源) 오염방제에 대한 지도·감독 임무, ▲국가해양국의 해양환경보호 임무, ▲국무원 남수북조(南水北调)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운송) 공정 건설 위원회 판공실의 남수북조 공정 구역의 환경보호 임무 등을 모두 통합함.

8개, 부부급(副部长级, 차관급 기구) 기구 7개가 축소되며, 국무원 산하 기구는 총 26개가 된다¹⁷⁾. 이중 그 동안 국토자원부의 관리 하에 있었으나 정식적인 국무원 부부급 기구로 중국의 해양 관련 업무를 관장해오던 국가해양국이 신설된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로 통폐합되었다. 신설된 자연자원부는 중국의 모든 자연자원에 대한 자산 소유권을 총괄 관리하고, 국토공간의 용도 관리 및 생태보호·복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기존 국가해양국의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자원부와 국가해양국, 국가지리측량제도정보국은 통폐합되지만, 대외적으로 국가해양국의 명칭(牌子)을 존속시킨다는 방침이다¹⁸⁾.

자연자원부의 설립은 중국 정부가 최근 지속 강조해온, 생태문명 건설 및 환경 보호, 효율적인 국토 이용관리에 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자원부와 함께 기존 환경보호부를 근간으로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가 신설되었다. 특히 국가해양국의 기존 임무 중에서 해양환경보호의 임무는 생태환경부로 포함되었다. 그밖에 국가해양국(중국해경국)이 관리하는 해경부대와 그의 관련 직책을 모두 무장경찰 부대로 통합하였다.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정부 고위급들의 의사논의 기구인 '중앙 해양권익수호 업무 영도소조(中央维护海洋权益工作领导小组)' 역시 이전된다¹⁹⁾. 중앙 해양권익수호 업무를 중앙 외사업무 안으로 포함시켜서, 관련된 업무들은 중앙 외사업무 위원회 및 그 판공실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 외사업무 위원회 판공실 안에서 해양권익수호업무 판공실을 설치하게 된다.

그밖에 기존 농업부가 농업농촌부로 바뀌면서, 기존 농업부가 담당하던 어선 검사 및 감독관리 임무는 교통운수부로 이전되었다.

2) 「정부업무보고」, 해양 생태환경 보호 중시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 이어 금번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생태문명 건설'을 강조했다.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생태문명 체제의 완비를 주요 임무로 제시했다. 특히 금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해양 및 수자원 환경 보호의 관련 내용이 강조되었다. 먼저, 생태환경 관리 제도를 개혁·보완하여 자연 생태공간의 용도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 실시 및 생태보상 메커니즘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제도를 통해 생태환경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중점 수역과 해역의 종합적인 방제 및 정돈을 통해 오염된 환경을 개

17)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국무원은 총 7차례 정부기구 개편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 개편안은 1998년 주룽지 총리 이후 20년 만의 최대폭 개편안으로 꼽힘. KOTRA 베이징무역관, "20년 만에 최대 폭 국무원 기구 개편", 2018. 3. 22.

18) 국토자원부와 국가해양국, 국가지리측량제도정보국은 통폐합되지만, 대외적으로 국가해양국의 명칭(牌子)을 존속시켰음.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외적으로 명칭을 존속시킨다는 말은 원래 기관의 직능이 다른 기관으로 통합하게 되어 한 업무팀(班子)만 남게 된 경우, 그러나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명칭을 보류해 준다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통폐합된 기구의 명칭이 비교적 강한 '대체 불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절충적 방안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海洋知聞(2018. 3. 17)을 바탕으로 필자 주.

19) '영도소조(leading small group)'는 중국 특유의 조직체로 하나의 의제와 관련된 다 부처의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의사협정기구로 볼 수 있으며, 농촌업무영도소조, 중앙외교업무영도소조 등 다양한 영도소조들이 존재하고 있음. 필자 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선시킬 계획이다. 셋째, 습지보호 및 복원 범위를 확대하고 국립공원 체계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며, 넷째, 바다매립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양회’ 기간 국가해양국의 관계자들이 이러한 「정부업무보고」의 제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밝혔다. 먼저 바다 매립과 관련하여, 장화안(江华安) 국가해양국 해역종합관리사(海域综合管理司) 사장에 따르면, 올해는 「바다매립 관리·통제 방법」, 「해안선 보호와 이용 관리방법」 및 「해역과 무인도 유료이용에 관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세분화된 실시방안과 기술기준 규정을 제정하여 바다매립에 관한 통제·관리 제도를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²⁰⁾. 선권(沈君) 국가해양국 전략계획·경제사(战略规划经济司) 부사장은 해양경제 발전은 ‘생태우선 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해양생태문명 건설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3) 해양경제 발전과 해양권의 수호, 시진핑 주석의 해양사업 발전 방향

「정부업무보고」에는 해양 생태환경 보호 외에도 ‘해양경제 확대와 국가의 해양권의 수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양회’ 기간 중, 시진핑 주석은 산동 대표단 회의에 참석하여 “해양은 고품질 발전전략의 공간”이라고 밝히며, “세계 일류의 해양 항만, 완비된 현대 해양산업시스템 및 친환경·지속가능한 해양생태환경의 구축을 촉진해야 하며, ‘해양강국’ 건설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중국 해양관련 사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장잔하이(张占海) 국가해양국 전략계획·경제사(战略规划经济司) 사장은 시진핑 주석의 ‘해양은 고품질 발전전략의 공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해양경제가 고품질로 발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의미한다. 하나는 해양산업 규모 및 그 증가폭이 지속 확대되고 구조조정을 심화시키는 것이며, 해양분야의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질적 성장과 효율 증대의 새로운 발전패턴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친환경·지속가능한 발전 및 해양 관련 과학기술 혁신과 해양경제시범구 건설 추진으로, 해양생태문명 구축을 강화하고 해역과 도서 자원의 합리적인 시장화 배치 및 육지와 해양이 통합되는 공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해양국은 향후 ‘생태, 민생, 생산의 세 가지 공간 구도 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해양주체기능구 제도 이행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²¹⁾.

4 수산 분야 주요 내용

금년 「정부업무보고」에는 ‘농·림·축산·어업과 종자 산업의 공급측 개혁’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번 ‘양회’에 참석한 많은 대표들이 수산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20) 中国海洋报, “两会海洋工作者热议政府工作报告”, 2018. 3. 9.

21) 中国海洋报, “在高质量发展战略要地上展现新作为”, 2018. 3. 12.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화'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1) 원양어업의 건강한 발전 지속 지원

전인대 대표인 푸저우 홍동원양어업유한회사(福州宏东远洋渔业有限公司) 란 평용(兰平勇) 회장은 중국 원양어업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을 촉구했다. 란평용 회장은 첫째, 해외 어업 프로젝트의 법률적인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대일로' 연선 나라들과 정부 간 어업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원양어업 기지의 장기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어업의 대외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역량을 갖춘 수산기업들이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어업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선박 개조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시장의 표준을 부합하는 신형 전문화 어선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안정된 어선의 건조를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²²⁾.

2) 어촌에 대한 지원 및 레저어업 발전

전인대 대표인 양장(阳江)시 하이린시험구 시웬촌(海陵试验区荊元村) 량타오(梁桃) 당서기는 어업·어촌의 현대화 추진을 강조했으며, 어업을 전도유망한 사업으로 육성하고 아름다운 어촌 건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각급 정부에서 어촌의 레저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현지 어업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대형 레저어업 기지의 건설을 지원하고 레저어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 어업 산업화 구조 조정, 해양조업어민의 생산 업종 전환을 위해 레저어업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레저어업과 관련하여, 하이난성의 전국정치협상위원회 위원들은 농업부에서 레저어업 관련 부서를 구성하여 레저어업 입법을 가속화 시켜야 된다고 공동 제안했다. 저장성, 산둥성 등 중국에서 레저어업이 발전된 지역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외의 선진적인 경험을 참고하며 레저어업 관리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히 레저 어선에 대해 유형별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하이난의 특구 입법권 사용을 지지하고 전국에서 선발적으로 레저어업에 대해 규범화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하이난성에서 레저어업관리, 바다 낚시운동 및 바다낚시 관리, 바다낚시 기지 관리, 레저어업 선박관리 등 법규를 제정할 계획인데, 농업부, 교통운수부, 국가해양국 등 관련 부문들에서는 이러한 법규 제정을 지원하며, 하이난의 요트 낚시의 발전을 지원한다고 제안했다. 하이난에는 현재 유람선, 요트, 어선 26,000여 척이 있고 이중 70%의 유람선과 요트는 낚시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요트는 개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트 렌트, 운영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²³⁾.

22) 中国海洋报, “继续支持远洋渔业行业健康发展”, 2018. 3. 12.

23) 通威集团, “刘汉元、刘永好、车轼等水产大佬在两会说了什么”, 2018. 3. 6.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화'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3) 농수산물 생산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중국 전국정치협상위원회 위원이자 '구삼학사(九三学社)'²⁴⁾ 중앙 부주석인 농업부 장타오린(张桃林) 부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농수산물 생산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향후 '농촌 진흥 전략'을 주요 수단으로 하여 녹색발전을 추진하고, 농수산업의 '생산량 중시' 발전에서 '품질 중시' 발전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질의 녹색 농수산물 공급 확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양질의 녹색 농수산물 제공을 위해 다음의 조치들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원산지의 생태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국무원에서 발표한 「토양 오염 예방·관리 행동 계획」과 「수자원 오염 예방·관리 행동 계획」을 실시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둘째,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 과정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표준화·친환경·브랜드화 생산을 추진하며 특히 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 농수산물용 화학제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셋째, 생산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제품 품질의 추적 기능을 실현한다. 특히 모니터링을 통한 위험 경보체계 및 감독·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농수산물의 품질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²⁵⁾.

4) 어항 '항장제' 실시 건의

전인대 대표인 동방해양(东方海洋)의 처쓰(车轼) 회장은 '어항 항장제(港长制)' 실시를 건의하였다. '하장제(河长制)', '호장제(湖长制)'의 관리 모델과 성공 경험을 참조하여²⁶⁾, 국무원에서 전국 주요 어항에 관할 시·현(县) 및 향·진(乡镇) 정부의 주요 관리자를 책임자로 한 어항 항장제 실시를 통해 어업 자원보호 및 어항의 경제 진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쓰 회장은 정부에서 어선이 기항하는 지정 어항의 리스트를 발표하고, 어항들의 인프라 시설과 감독 능력을 강화하며 어업관리 부문이 각 어항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실시간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어항에서부터 공급되는 어획물에 대한 추적가능한 관리가 가능해지고, 구체적인 어획 선박 척수, 조업 수역 및 조업 시간들에 대해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선마다의 어획량을 통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²⁷⁾.

5) 수산양식업 친환경 발전 촉진

전인대 대표인 홍동원양어업유한회사 란평용(兰平勇) 회장은 국무원에서 '수산양식 친환경 발전 의견' 발표를 통해 수산 친환경 양식의 주요 목표 및 중점 사업을 명확히 하여 각 지역에서 실시하게 지도함으로써 친환경 수산양식의 발전을 추진하자고 건의했다.

24) 九三学社, 과학기술 하계의 지식인들이 주요 당원으로 구성된 정당임, 필자 주.

25) 人民网, "张桃林委员: 加强农产品生产全程监管 实现质量可追溯化", 2018. 3. 3.

26) '하장제(河长制)', '호장제(湖长制)'는 중국 각 급 정부의 중요 관리자를 '하장' 및 '호장'으로 임명하여, 관할 내하 및 호수의 관리와 보호 책임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임, 필자 주.

27) 黄正丽, "刘汉元、刘永好、车轼等水产大佬在两会说了什么", 2018. 3. 6.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화'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또한 '수산양식 친환경 발전 전문 기금' 설립을 주장했다. 현존의 어업 자금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수산양식 녹색발전을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발전개혁 위원회, 재정, 금융, 보험 등 관련 부문에서 수산 녹색양식을 위해 정책과 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 밖에 전국정치협상위원인 중국해양대학교 수산학 원 마이강선(麦康森) 원장은 양식 배출물 처리를 개선하고 폐기물 처리의 원가를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²⁸⁾.

5 시사점

중국 개혁개방의 40주년 및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개최된 금번 양회에서 헌법개정안 및 국무원 기구개편안 등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다수 등장했다. '양화'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경제의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에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각 산업 분야에서 중국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공급측 개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생산 및 경영방식 도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중국 정부정책의 방향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비용 절감 정책에 따라 세수절감, 도로운송비 절감 등 다양한 조치들도 주시하여 기업 운영원가 절감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의 지속적인 완화로 외자기업들의 중국 시장진입 문턱이 확대·개방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형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여전히 중국의 핵심 전략으로써 중국 해운·물류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관계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시장 개척을 모색해보는 것도 해외진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작년 '양화'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자유무역항' 설립 논의는 금번 '양화'에서도 주요 이슈였다. 아직까지 '자유무역항'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개방 수준으로 어떻게 운영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현재 상하이를 대표로 하여 많은 연해내륙지역들이 '자유무역항' 설립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단번에 홍콩 및 싱가포르와 같은 수준의 개방 정책을 펼치기는 어렵겠지만 현행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시범구' 보다는 더욱 업그레이드 된 버전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의 '자유무역항' 설립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할 것이며, 기업들 역시 새로운 정책 활용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중국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전체 또는 지방 차원의 자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운·항만·물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추진 정책들은 해외항만 개발·투자 및 연계성 확보,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

28) 中国环境报, “人大代表、政协委员提议: 加快推进水产养殖业绿色发展”, 2018. 3. 19.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력 강화, 콜드체인 물류를 위한 시스템 정비 및 시설투자 확대, 중국-유럽 간 국제화물 블록트레인 운행 확대, 스마트 물류 강화, 해상·철도·도로·항공 복합 연계운송 발전 등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현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정부나 관련 업·단체에서는 우리의 해운·항만·물류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금번 '양회'에서 확정된 국무원 조직개편안에 따라 행정부처의 기능 조정이 시작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해양분야를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금번 국무원 조직개편안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많다.

특히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존 공상행정관리총국, 질량감독감독검험검역총국, 식약품감독관리총국 등의 업무를 통합하면서 식품안전, 수입제품 감독, 지식재산권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²⁹⁾.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관련 행정 업무의 집중화로 행정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행정업무 처리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감안하고, 사업 관련 부서의 동태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희가혜·진선선·하염뢰·김세원 연구원, 김형근 센터장
kmishanghai@naver.com

29) KOTRA 베이징무역관, "20년 만에 최대 폭 국무원 기구 개편", 2018. 3. 22.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첨 부

중국 31개 각 성·시별 지방 '양회' 중 물류 분야 언급 내용

성·시	주요 내용
1 헤이룽장	• 농산품 가공, 전자상거래, 물류, 택배, 농업 관련 서비스업 산업 발전 가속화, 원활한 농촌 물류통로 구축 • 물류기업의 규모 및 경쟁력 제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2 지린성	• '지린 실크로드(丝路吉林)' 대통로 구축, 두만강 출해구의 실질적인 성과 및 차항출해(借港出海, 인근 국가 항만을 통해 해양 진출) 실현 • 현대 물류, 우정택배 등 대폭 발전, 윈다(韵达)그룹의 지린택배전자상거래본부 등 사업 추진, 지린성 전자상거래 교역액 30% 이상 제고
3 랴오닝	• 종합적인 교통운송 국제대통로 건설, 중국-유럽 블록트레인 영향력 제고 • 도로요금 징수제도 개혁, 무분별한 운송요금 및 벌금 징수 개선
4 베이징	• 배기가스 고배출 차량 정리, 초과 배출 차량 단속 강화 등
5 톈진시	• 해상·철도·도로·항공 복합연계운송 발전, 국제항공물류중심 건설 추진, 컨테이너물동량 1,600만 TEU 달성, 지역성 철도·항공허브 및 해상 문호 구축
6 허베이	• 운송 구조조정 촉진, 철도화물 확대, 첩단산업 이전과 연계한 랑팡(廊坊)징동 전자상거래, 바오딩신파터(新发地)물류원구 2기 등 중점 사업 추진 • 소비 촉진, 전자상거래 농촌 배송, 유통물류 배송시스템 구축
7 산시성	• 공급사슬물류, 스마트물류, 콜드체인물류 적극 육성, 중국-유럽-중앙아 블록트레인 운행체계 개선, 따통(大同)·양쥔(阳泉) 등 국제 내륙항 건설, 국제우편 호환국 및 국제우편처리센터 건설 추진
8 네이멍구 자치구	• 물류 집산, 가공·포장, 콜드체인 배송 등 플랫폼 건설, 현대물류산업 발전 지원, 중국-유럽 블록트레인의 상시화 운행 지원정책 추진
9 후베이	• '교통강성' 3년 액션플랜 실시, 우한 창장중류항운중심, 삼협(三峡) 종합교통 허브, 한강(汉江) 현대수운체계 건설, 후베이 국제물류 핵심허브, 싱저우(荊州) 공항건설 등 추진 • 현대 유통체계 구축, 전자상거래 적극 육성, 온·오프라인 융합발전 추진 • '일대일로' 전략 융합 심화, 대통로·대통관·대플랫폼 건설 촉진, 중국-유럽 블록트레인, 강·해 직항, 복합연계운송 발전 추진 • 국제무역 '싱글윈도우' 구축, '1회 신고, 1회 검사, 1회 통관', '무서류 통관' 모델 실시 및 세관 서비스 기능 제고
10 후난	• 생산성 서비스업, 정보서비스, 친환경택배, 스마트물류 등 신형서비스업 발전 • 국제물류 대통로 건설 촉진, 국제 익스프레스 철도노선, 국제 항공운송, 국제 수운 및 복합연계운송 발전 지원 • 현지 전자상거래 브랜드 및 10개 현급(县级) 전자상거래서비스 시범중심지지 구축, 농촌지역 택배 확대 및 도·농간 3급 물류배송체계 개선 촉진
11 허난	• '육상 실크로드' 건설 추진, 중국-유럽 블록트레인(정저우) 운영수준 제고, '온라인 실크로드' 건설, 국제전자상거래 시범구 건설 촉진 • 정저우 항공경제종합실험구 건설, 세관기능 확대, 국제무역 '싱글윈도우' 체계 개선, 대형 물류기업 유치, 비행기 리스 등 신사업 발전 추진, 국제항공운송허브 및 물류중심 기능 제고
12 장시	• 간저우(赣州)항, 상탕(向塘)철도물류항, 주장(九江)유역 권역성 항운중심 등 중점 물류허브 건설, 창베이(昌北)공항 건설을 통한 항공물류항(物流港) 구축
13 산둥	• 물류산업 클러스터 육성,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한 육·해·공·내·외·동·서 양방향의 전면적인 개방국면 조성 • 칭다오, 옌타이, 르자오를 해상 협력전략거점으로 육성하고, 중국-유럽 블록트레인의 새로운 모델 모색
14 장쑤	• '일대일로' 전략의 교차점이라는 우위를 발휘하여, 높은 수준의 증가자흐(렌원강) 물류협력기지 및 상하이협력기구(렌원강) 국제물류단지 구축 • 현대화된 종합교통운송체계 구축, 고속철도·항공·수운·도로·파이프라인 등 중점 교통인프라 시설 건설 적극 추진, 교통 인프라 투융자 채널 확대
15 안후이	• 현대 종합교통체계 구축, 고속철도 건설 및 고등급도로 네트워크 및 농촌도로망 개선, 항공·수운 통로 구축 촉진, 전국 중점 종합교통허브 건설 가속화 • 현대 물류시스템 및 고효율 물류플랫폼 구축, 임항(临港)물류원구 수준 제고
16 저장	• 세계급 항만군 구축, 이우~유럽 블록트레인 상시·시정화 운영 및 진용(金甬) 철도 건설 추진
17 푸젠	• 현대 물류,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유통효율 제고, 유통비용 절감 • '3통'서비스 수준 제고, 해운·항공 연계 확대, 양안 직항화물운송 노선 증설 • 항만구역, 항로 및 복합연계운송 통로 건설 강화, '일대일로' 연계 추진
18 상하이	• 강·해, 해상·철도 연계운송 등 화물집산방식 개선
19 광둥	• 현대 유통 발전, 10개 매출액 100억 위안 규모의 공급사슬서비스 기업 육성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화'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장비, 농업설비, 농산물 콜드체인물류배송 시스템 발전 • '일대일로' 전략 심화 참여, 광저우/선전항 등의 글로벌 해운네트워크 확대, 중국~유럽·중양아 블록트레인 운영, '일대일로' 연선국가 인프라 연계 촉진
20	광시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싱가포르 연계 통로 건설 추진, 진저우(钦州)항 동역 철도컨테이너 ICD, 중국~싱가포르 난닝 국제물류단지 등 41개 프로젝트 건설 촉진, 남북 관통 해상·철도 국제무역화물 간선 구축 및 인도차이나반도 국제도로운송 공고화 • 베이부안(北部湾)항~충칭 블록트레인 및 베이부안항~싱가포르/홍콩 간 데일리 화물열차 개통, 서부지역 다수 내륙항 건설 • 통관 편리화 개혁, 통상구 기초인프라 개선, 세관·검역·변경·해사 등 관련 부문간 '원스톱' 서비스 추진, '연합검사, 1회 통관' 실시, 국제무역 '싱글윈도우' 완성, 복합연계운송 종합정보플랫폼 구축, 화물 환적 및 통관 시간 절감
21	하이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업무 적극 개발, 국제무역시장 니치마켓 발굴, 국제항로 100개 이상 목표, 주변 국가와 지역 공항 간의 연계 추진, 공항만 경제단지 건설, '범남해' 국제무역 및 해운허브 구축 • 융합발전 촉진, 빈랑·야자·후추·커피·익지(과일의 종류)·차·열대과일 등 농산물 가공 및 냉동운송 지원,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22	쓰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화 농산물 콜드체인물류 및 건조창고 등 서비스체계 구축 •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국가별 산업단지 건설, 국제 블록트레인 운영 수준 제고 • 무역 촉진, 시장주체 육성 및 통상구 물류통로 건설 촉진 • 물류기초인프라 확대, 물류거점 체계 개선
23	윈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허브 및 종합교통체계 병행 계획·건설, 지역성 국제현대물류중심 구축 • 물류기초인프라 건설 촉진, 물류시범단지 및 콜드체인시설 건설 추진, 복합 연계운송 적극 발전, 고속철도 운송, 스마트창고 발전 • 현·향·촌의 3급 물류 네트워크 건설 추진 • 공급사슬체계 형성, 국제물류그룹 육성, 국제물류 고효율·고속통로 구축 • 교통운송물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물류정보화 수준 제고 • 통상구 소프트웨어 건설 및 통관효율 제고, 화물 및 인원 왕래 편리화
24	꾸이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드체인물류, 농촌전자상거래 물류 발전, 다수의 지역 물류중심 및 거점형 집산중심, 창고기지 건설, 스마트물류체계 구축, 콜드체인물류 네트워크 개선 • 항공 전세기 운송 발전, 복합연계 국제대통로 및 꾸이양(贵阳) 중국~유럽 블록트레인 야드 건설, 준이(遵义)종합보세구역 운행 개시, '통상구+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복합연계운송'의 새로운 모델 구축
25	시장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무역 물류산업 육성, 지룽(吉隆), 푸란(普兰), 아둥(亚东), 쯡무(樟木), 르우(日屋)·천탕(陈塘), 리즈(里孜) 등 통상구 및 나이우이라(乃堆拉), 지타이(吉太) 등 통로 변경무역시장 건설, 변경무역과 수출입 무역 발전 • 순평택배 등 물류기업 영업 유지, 유통물류 발전 수준 제고
26	충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업 스마트화 수준 제고, 공동배송 등 새로운 공급사슬 형태 발전 • 중국~유럽 블록트레인(충칭) 1,000회 운행, 국제소포운송 및 관광통로기능 확대, 충칭·꾸이저우·광시·간수 남향 해운철도 연계운송 발전, 국제 도로 연계 운송/해운철도연계운송 새로운 규칙 모색 • 지정 통상구 기능 확대, 스마트 통상구 건설, 귀원(果园)항 통상구 및 보세물류센터 설립 노력, 국제무역 '싱글윈도우' 개선
27	닝샤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아라비아국가 박람회를 이용한 육상항공온라인 개방통로 추진, '실크로드 경제벨트' 거점 구축, 다층화·광대역·전방위적 개방발전 국면 조성 • 전자상거래 확대,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 강화, 농촌 택배 추진, 온라인 거래액 15% 성장 추진 • 항공 통상구 기능 보완, 육류·과일·종묘·완성차 수입 지정통상구 건설 • 국제 블록트레인 야드 건설 및 인환~테헤란 국제화물열차 상시화 운행, 연해항만과 정기열차 개통 노력
28	신장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물류업 발전 촉진, 물류허브 시설 및 도농 시장 네트워크 강화, 국제상품 교역·전시, 현대 물류서비스 조직, 전자상거래 혁신 응용, 국제 통상구 개방 발전, 도농 유통물류서비스 등 체계 보완, 온/오프라인 심화융합 촉진
29	칭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도로·항공·파이프라인·통신·정보·물류 등 기초인프라 네트워크 건설 강화, 성간 연계루트 개척, 운송 편리화 도모
30	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가공·판매·저장·물류 등 체계 건설, 농촌 1~3차 산업 융합발전 • 물류자원 통합, 물류 선두기업 육성, 복합연계운송 대력 추진, '시안항' 및 창안호(중국~유럽) 블록트레인 운영 수준 지속 제고
31	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철도·물류 기능 종합 건설 및 각 교통인프라 간 연계 촉진, 성급 종합물류운영플랫폼 구축, 시장화된 운영주체 육성, 남향통로 철도·해운 연계운송, 국제화물 블록트레인 상시화 운영 • 중국~유럽중양아시아남아시아 국제화물열차 운영효과 제고, 란저우~파키스탄 과다르항 도로·철도 복합연계운송 열차 개통 노력 • 고속철도 경제벨트 계획, 실크로드 정보항 건설 촉진, 통상구 기능 개방, 곡식 및 완성차 수입 통상구 비준

자료 : sohu.com, "2018年, 31省区直辖市的物流业这么干!", 2018. 2. 6. ; KMI 정리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경제 · 정책

- 국무원 산하 자연자원부 설립, 기존 국토 자원부 및 해양국 통폐합
- 광저우 난시(南沙)개발구관리위원회, 중련 운통그룹(中联运通)과 전략적 협력 체결을 통해 난사국제항운중심 건설 공동 추진
- 충칭 귀원(果园)항, '선적항 수출세 환급' 정책 실시
- 「해상교통안전법(수정안)」, 2018년 입법 계획에 포함
- 올해 3월 15일부터 내수 컨테이너운송에 유류세 징수

해운 · 항만 · 물류

- OOCL 2017년 흑자전환 성공, COSCO SHIPPING과 인수합병 건 올해 완료 예정
-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자유무역항 건설 역설, 세계 사례 벤치마킹 필요
- 장자강(张家港), 중국 최초의 수입 대두 선물 지정통상구로 선정
- 상하이항 국제컨테이너 거래 '페이퍼리스' 시대에 진입
- COSCO, 'COSCO항만 우한(武汉) 유한공사' 설립

- 하이난(海南)성, 항만 기초인프라 건설 촉진을 통해 충저우(琼州) 해협 운송문제 해결
- 텐진-허베이 항만군의 합리적인 분업을 통해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텐진-허베이)' 협동 발전 촉진 필요
- 타이저우-충칭 창장 유람선 첫 출항, 창장 항만들 창장 유람선 적극 추진

해양 · 수산

- '양회' 광둥 대표단 : '웨강아오(粵港澳) 대만구' 건설 촉진, '1핵·1벨트·1구' 구도 구축
- 시진핑 주석, 중국 해양사업 발전방향 제시
- 강주아오(港珠澳)대교, 올해 2분기에 개통 예정
- 허광순(何广顺) 국가해양정보센터 주임 : 대형 국유 해양조사장비기업 설립 필요
- 허베이성(河北省) 해양주체기능구 계획 발표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	
<p>▶ http://www.kmislab.org <동향> 10대 컨테이너항만 수출입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슈 포커스: 2018년 '양회'를 통해 본 문장을 번역된 기사임.</p>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1 국무원 산하 자연자원부 설립, 기존 국토자원부 및 해양국 통폐합

3월 13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국무원 기구의 개혁방안(이하 국무원 조직개편안)'이 심의에 상정되었다. 동 국무원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국무원의 정부급(正部级) 기구 8개, 부부급(副部级) 기구 7개가 축소되며 국무원 산하 기구는 총 26개가 된다.

국무원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를 신설한다. 자연자원부는 중국의 모든 자연자원에 대한 자산소유권을 총괄 관리하고, 국토공간의 용도 관리제도 및 생태보호와 복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자연자원 소유권자들의 위법행위 및 국토공간의 계획 중복 등 문제들을 해결하고 산과 물, 농지와 초원 전체의 보호와 시스템적인 복원, 종합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조직개편안은 기존 ▲국토자원부의 임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체기능구 계획' 임무, ▲주택 및 도농 건설부의 도농 계획관리 임무, ▲수리부(水利部)의 수자원 조사 및 '토지확보권(确权)' 등기관리 임무, ▲농업부의 초원 자원 조사 및 '토지확보권' 등기관리 임무, ▲국가임업국의 산림, 습지 등에 대한 자원 조사 및 '토지확보권' 등기관리 임무, ▲국가해양국의 임무, ▲국가지리측량제도정보국의 임무를 통합하여 자연자원부를 신설하여 국무원 산하기구로 편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국토자원부와 국가해양국, 국가지리측량제도정보국은 통폐합되지만, 대외적으로 국가해양국의 명칭(牌子)을 존속시킨다는 방침이다.

<자료 : 人民日报, 2018. 3. 13>

2 광저우 난사개발구관리위원회 및 중련운통그룹 난사국제항운중심 건설 공동 추진

2018년 3월 8일, 광저우 난사(南沙)개발구관리위원회는 중련운통그룹(中联运通, Unitrans group)과 '전략적 협력 협의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난사 해운물류산업투자 및 난사해운물류산업 클러스터 등 프로젝트들을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의 체결 당일, 중련운통그룹과 광저우항 그룹의 합작기업인 광저우항 중련국제선박대리유한회사(广州港中联国际船务代理有限公司)의 현판식도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난사개발구상무국 Yang Ming해운, Master국제선박대리회사, 중련해운(CULINES), 중련국제선박대리회사 및 난사산업투자펀드 등 관련 기관·기업들이 양자 및 다자간 협력 협의를 체결했다.

천홍휘(陈洪辉) 중련운통그룹 회장에 따르면, 중련운통그룹 산하 CULINES 및 중련국제선박대리회사는 본사를 난사에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중련운통그룹은 '웨강아오(粤港澳大湾区·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³⁰⁾' 발전 계획에 부합하여 '난사발전전략(南沙发展战略)' 수립하고 난사해운물류산업 클러스터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련운통그룹은 현대물류 및 해운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상하이, 선전, 베이징을 사업 중심지로 하고 있으며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에도 회사를 설립했다. 동 사

30)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는 광둥성의 9개 주요 도시(선전[深圳], 광저우[广州], 주하이[珠海], 동관[东莞], 포산[佛山], 후이저우[惠州], 중산[中山], 장먼[江门], 자오칭[肇庆])들과 홍콩 및 마카오를 연결하는 거대 경제권을 의미함.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화'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의 중국의 모든 주요 항만들을 범위로 하여 선박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국제 컨테이너선대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중롄운통그룹은 선박대리 및 물류업무를 점차 난샤로 이전하고 난샤에 전문화된 대외무역 컨테이너선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순방청(孙邦成) 광저항그룹의 생산업무부 부부장(副部长)에 따르면, 난샤항은 적극적으로 해운업체들을 유치하고 있는 동시에 지속적인 항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난샤항 4기 공사가 착공되어 심수 선석 4개가 건설될 예정이며, 준공 후 난샤항은 20개의 심수 선석을 보유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난샤항 철도 공사, 부대 창고 및 항로 확장 공사들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난샤구 관계자에 따르면, 중롄운통그룹의 사업 범위에는 선박대리, 컨테이너운송, 선박관리, 운송주선업, 세관신고, 물류, 해운·항만 전자상거래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난샤구는 중롄운통그룹과 글로벌 대형 정기선사, 해운서비스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정기선사 및 선박관리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한다는 전략이며, 클러스터 효과를 통해 해운물류산업 클러스터 및 물류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난샤구는 해운물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중롄운통그룹과 공동으로 개발투자기금 설립을 통해 난샤국제항운서비스 역량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개발투자기금은 광둥자유무역시험구의 '해운물류+인터넷+금융' 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되어 해운물류서비스 산업 육성을 건인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개발투자기금을 활용하여 국제해운물류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자유무역시험구를 해운물류기업의 글로벌 운영중심 및 정보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자료 : 南方日报, 2018. 3. 9>

3 충칭 귀원(果园)항, '선적항 수출세 환급' 정책 실시

지난 2월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이 발표한 「선적항 수출세 환급 정책 개선에 대한 통지(关于完善启运港退税政策的通知)」에서는 기존 8개의 선적항(启运港) 외에 충칭 귀원항 등 5개의 신규 선적항과 1개의 수출항(离境港)을 추가했으며³¹⁾, 수출기업 및 해운기업들이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기존 정책에서 규정했던 '직항' 제한을 취소했다³²⁾.

최근 충칭 귀원항은 이미 상하이~귀원~난충(南充), 귀원~판즈화(攀枝花), 귀원~시창(西昌), 귀원~시안(西安) 등 수운-수운 환적 및 수운-철도 복합연계노선 10여 개를 개통했으며 쓰촨, 꾸이저우, 윈난, 산시, 광시 등 주변 지역 수출입 화물의 환적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료 : 重庆市交通委员会, 2018. 3. 14>

31) 「선적항 수출세 환급 정책 개선에 대한 통지(关于完善启运港退税政策的通知)」에서는 선적항을 ① 루저우(泸州)시 루저우항, ② 충칭시 귀원항, ③ 이창(宜昌)시 윈즈(云池)항, ④ 웨이양(岳阳)시 링지(陵江)항, ⑤ 우한시 양뤄(阳逻)항, ⑥ 지우장(九江)시 청시(城西)항, ⑦ 후후(芜湖)시 주자차오(朱家桥)항, ⑧ 난징시 룽탄(龙潭)항, ⑨ 장자강(张家港)시 융자(永嘉)항, ⑩ 난통(南通)시 랑산(狼山)항, ⑪ 쑤저우시 타이창(太仓)항(이상은 모두 창장 항만들임), ⑫ 뎬원강항, ⑬ 칭다오 첸완(前湾)항 등 총 13개 항만으로 확대했으며, 수출항(离境港)을 기존 ① 상하이 양산항에서 ② 와이까오차오항까지 2개로 늘림.

32) '선적항 수출세 환급'을 적용 받는 선박은 기존에는 선적항과 수출항간의 직항만 허용되었으나, 금번 「선적항 수출세 환급 정책 개선에 대한 통지」에 따라 경유항(经停港)으로 ① 난징시 룽탄항, ② 우한시 양뤄항, ③ 쑤저우시 타이창항이 선정되었고, 선적항을 출항한 선박은 상기 경유항에서 정박하여 화물을 적재할 수 있게 됨. 하지만 상술한 항만 이외의 항만에서는 정박이 안 되며 또한 상기 항만에서 화물 하역은 할 수 없음.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화'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4 OOCL 2017년 흑자전환 성공, COSCO SHIPPING과 인수합병 건 올해 완료 예정

2017년 OOCL(00316.HK)의 기업실적에 따르면, 영업 수익은 61억 800만 달러(USD)로 전년 동기대비 15.3%의 성장을 기록했으면, 지배주주 귀속순이익은 1억 3,800만 달러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전년도 2억 1,900만 달러 적자). 이러한 실적은 지난 2009년에 4억 200만 달러의 적자 후 2010년에 18억 6,700만 달러로 흑자 전환 이후, 최근 7년 동안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이다.

2017년 OOCL 분야별 실적을 살펴보면, 컨테이너운송업무 및 물류업무가 2016년의 2억 7,400만 달러 적자에서 2017년의 1,200만 달러로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또한 부동산 투자 등 기타업무에서 1억 5천만 달러의 이윤을 남겼다. OOCL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의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좋았다. 최근 10년 동안의 저성장이 끝나고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GDP 및 무역량이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다.

3월 12일 개최된 OOCL 실적회의에서 동리신(董立新) 재무총재에 따르면, 2017년 OOCL은 원양서비스업무 분야에서 전년대비 10% 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유럽과 미국 경제의 회복에 따라 2018년도 양호한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운시장의 회복세에도 2017년 유럽 선사들의 신조 발주는 소량에 그치며 여전히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2018년 신조선 인도량은 2017년의 119만 TEU보다 37만 TEU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9년 신조선 인도량은 84만 TEU, 2020년에는 39만 TEU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운임은 2016년에 TEU당 773달러에서 2017년에는 TEU당 861달러로 상승했다.

또한 OOCL은 삼성중공업에게 발주한 21,413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작년에 이미 인수하였고, 마지막 1척도 올해 1월에 인수했다. OOCL과 COSCO SHIPPING 인수합병 건은 현재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航运交易公报, 2018. 3. 12.>

5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자유무역항 건설 역설, 세계 사례 벤치마킹 필요

올해는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되는 해이다. '양화'의 「정부업무보고」는 2017년 10월 개최된 제19차 중국공산당 당 대회에 이어서 재차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을 제시하면서 '자유무역항'은 중국 개방개혁의 새로운 이슈로 국내외의 주목을 끌고 있다. 왜 자유무역항 건설이 필요한가? 자유무역항을 어떻게 그 개념에서부터 이행해 나갈 수 있을까? 지난 몇 년간 논의되었던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자유무역구')의 건설 방향과 어떻게 자유무역항이 융합·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양화'기간 개최된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몇몇의 전인대 대표들이 자유무역항에 대한 주장 및 건의를 제시하였다.

3월 9일 전인대 대표이자 푸젠자유무역구 종합연구원 원장인 황마오싱(黄茂兴)은 3월 9일 인터뷰에서 "새로운 국면에서 세계의 새로운 분업추세에 동참하고 중국 대회 개방 정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 자유무역시범구를 지속 심화시켜나가는 기반 하에서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자유무역항은 중국 신시대 대외개방의 새로운 요충지이다"고 역설했다.

황마오싱 대표에 따르면, 싱가포르, 두바이, 독일의 함부르크 등 세계 자유무역항의 성공 사례를 보았을 때, 자유무역항의 벤치마킹은 아래의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첫째, 높은 수준의 기준·규칙에 대한 벤치마킹이다. 세계적으로 높은 기준의 투자무역 규칙과 긴밀히 연계하여 시장진입, 관리, 금융, 세칙, 인력 유동 등 부문에서 특수한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정책의 벤치마킹이다. 투자 자유, 무역편리화 정책을 한층 더 개선하여 '1선에서의 개방, 2선에서의 안전·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생산요소 배치에 대한 벤치마킹이다. 인력, 자금 등 생산요소의 자유 유동을 위해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황마오싱 대표는 "자유무역항은 자유무역구의 간단한 '업그레이드버전'이 아니다. 세계의 선진적인 자유무역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여기에 중국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빅데이터, 인터넷 기술 등 현대적인 기술을 통해 공공서비스플랫폼, 항만자원 등 부문에서 연계기능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마오싱 대표에 따르면, 자유무역구에서 자유무역항으로 발전함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바로 '정층설계(국가 탑 레벨에서부터의 업다운 방식의 계획 추진)'이다. 국가의 관련부문을 통합하여 계획적·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취사선택하여 자유무역항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재 중국의 여러 지역들이 자유무역항 건설을 위해 경쟁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각 지역들이 현지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포지셔닝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없이 충동적으로 추진한다면 실패하기 쉬운 관계로 전략적인 협력발전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황마오싱 대표는 "해양 항만과 내하항, 육지항, 그리고 공항 간 연동발전을 강화해야 하고, 세관, 검역, 해사안전 등 출입국 관리부문이 적극 협력·통합하여 업무연락협조시스템을 구축하며 중복된 관리를 피해 행정관리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3월 8일 오후, '양회'의 심의계획보고와 예산보고에서 전인대 대표이자 푸젠성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전 부주임을 역임한 예왕위(叶双瑜)는 "자유무역항 건설을 빠르게 실행에 옮겨야 된다. 실행이 시작되어야만 방안에 대한 모색이 가능하다"고 건의했다. 황마오싱 대표 역시 '1선(一线)' 개방에 있어서 푸젠성이 국제 무역화물의 환적을 유도하여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허브항만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선(二线)'의 관리에 있어서도 더욱 융통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중국 중서부지역의 화물들이 푸젠성을 통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국내외 무역의 연동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료 : 中国新闻网, 2018. 3. 9>

6 장자강(张家港), 중국 최초의 수입 대두 선물 지정통상구로 선정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최근 「수입 대두 선물 교부 검역관리 개혁조치 구체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推动落实进口大豆期货交割检验检疫监管改革措施的通知)」를 발표하면서 중국 최초의 수입 대두 선물 통상구와 교부창고를 공표했다. 금번 승인을 받은 선물 대두 지정통상구는 총 11개이고, 선물 대두 교부창고는 6개인데, 장자강(张家港)은 2개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

장자강 통상구는 중국의 주요 대두 수입통상구 중 하나로, 2017년 대두 수입은 총 420만 톤 이상을 기록하여 중국 대두 수입 총량의 약 5%를 차지했다. 장자강 통상구는 선물 대두 수입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직접 해외에서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대두를 구입하는 방법 외에도 교부창고에서 선물 대두를 구입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되었다. 장자강 보세구(진강진[金港镇])에 위치한 장하이식용유그룹유한공사(江海粮油集团有限公司)는 매년 90만 톤 이상의 대두를 수입하고 있다. 장자강이 선물 대두 통상구로 지정되면서 동사의 창고는 장자강시의 유일한 교부창고로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동사의 사업 모델도 '대두를 가진 양만큼 거래한다'는 방식에서 '대두가 없어도 기존과 같이 거래할 수 있다'로 바뀌게 되었다.

장즈펑(蒋志峰) 장하이식용유(장자강) 부총경리는 "현재 수입 대두 5월 교부 가격이 톤당 3,372위안이라 할 경우, 만약 구매 기업이 원한다면 이 가격으로 실제 5월에 교부되는 대두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추후 시장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과 상관없이 5월까지 모두 이 가격이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중국에서 수입대두의 선물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가격 변동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임, 환율, 세율 등 불확실한 요소들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장자강 검역국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매년 9,000만 톤 이상의 수입 대두를 시카고 거래소의 가격으로 밖에 받을 수 없다. 중국에서 대두 선물시장이 출현함으로써 중국은 '중국 대두가격'에 따라 국제 대두시장에서 중국의 위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수입 대두 선물거래 발전을 활성화하여 국제시장에서 중국 농산품의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中国金融信息网, 2018. 3. 12.>

7 '양회'광둥대표단 :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촉진, '1핵1벨트1구' 구도 구축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³³⁾ 발전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마싱루이(马兴瑞) 광둥성 성장(省长)은 '웨강아오 대만구' 관련 계획은 곧 발표될 것이라고 추가 언급하며, 현재 광둥과 홍콩, 마카오는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에 관한 체계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싱루이 성장은 광둥성은 동 계획의 실행에 주력하여 계획 실행을 위한 로드맵과 시공 계획을 제정하고 업무를 세분화시켜 명확한 일정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광둥, 홍콩과 마카오 3개 지역 간의 긴밀한 조정·협력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싱루이 성장에 따르면, 세계 일류의 도시군을 건설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웨강아오 대만구' 인프라 시설의 상호연계를 가속화시키고, 광둥성은 홍콩, 마카오와 함께 세계급 항만군, 공항군,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망을 건설하여 완벽한 '대만구' 교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역의 혁신 환경을 최적화하여 대학교, 과학연구소 및 기업 등 혁신주체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며,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국제 과학기술 혁신중심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둥성은 홍콩, 마카오와 함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개방적인 경제체제를 조속히 구축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거주 및 노동, 관광하기 좋은 고품질 생활권을 구축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생태보호를 엄격히 수행하여 양호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지닌 현대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고품질 발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33)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는 광둥성의 9개 주요 도시(선전[深圳], 광저우[广州], 주하이[珠海], 동관[东莞], 포산[佛山], 후이저우[惠州], 중산[中山], 장먼[江门], 자오칭[肇庆])들과 홍콩 및 마카오를 연결하는 거대 경제권을 의미함.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첸루궈(陈如桂) 선전시 시장은 국가 차원에서 '웨이강아오 대만구'에 관한 통합·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광저우, 선전, 홍콩 등 도시의 공항, 항만, 고속철도와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 시설 간 상호연계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왕루이궈(王瑞军) 광둥성 과학기술청 청장은 '범주장삼각주(泛珠江三角洲)'를 더욱 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 혁신요충지로 구축하는 시기가 왔다고 밝히며, 더 높은 차원, 더 넓은 범위에서 광둥, 홍콩, 마카오의 강점을 발휘하여 상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만구' 과학기술 혁신 일체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시(李希) 광둥성 서기에 따르면, 향후 광둥성은 지역발전 구도를 '1핵·1벨트·1구(一核一带一区)'로 구축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장삼각주 핵심구 최적화 발전을 추진한다(1핵). 둘째, 광둥성 동부와 서부를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구축하고, 주장삼각주 도시와 연결해서 연해경제벨트를 조성한다(1벨트). 셋째, 광둥 북부 산악지역을 생태발전구로 구축하고(1구), 생태우선과 녹색발전을 중심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생태보호 속에서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도록 한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8. 3. 9>

8 시진핑 주석, 중국 해양사업 발전방향 제시

3월 8일, 2018년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에 시진핑 주석은 산둥 대표단의 심의 회의에 참석하여 "해양은 고품질 발전전략의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일류의 해양 항만, 완비된 현대 해양산업시스템 및 친환경·지속가능한 해양생태환경의 구축을 가속화시켜야 하며, '해양강국'건설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중국 연해지역 해양 관련사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으며, 중국 해양업무 관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장잔하이(张占海) 국가해양국 전략계획·경제사(战略规划经济司) 사장(司长)은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해양은 고품질 발전전략의 공간' 및 '완비된 해양산업시스템 구축 가속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장잔하이 사장에 따르면, 해양경제가 고품질로 발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의미한다. 하나는 해양산업 규모 및 그 증가폭을 지속 확대하고 구조조정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해양분야의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질적 성장과 효율성 증대의 새로운 발전패턴을 구축하도록 한다. 다른 하나는 친환경·지속가능한 발전 및 과학기술 혁신을 견지하고, 해양산업의 혁신발전을 촉진하며 해양경제시범구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해양생태문명 구축을 강화하고, 해역과 도서 자원에 대한 시장화 배치를 최적화시켜서 주체기능구를 기반으로 육지와 해양이 통합되는 공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새로운 시기'의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기반일 것이다. 또한 전략계획·경제사는 향후 '생태, 민생, 생산'의 세 가지 공간 구도 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해양주체기능구 제도 이행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커창(柯昶) 국가해양국 생태환경보호사 사장(司长)은 '친환경·지속가능한 해양생태환경' 건설에 대해 "맑은 물, 푸른 해안, 깨끗한 모래사장, 아름다운 해만과 풍부한 물자"라는 해양건설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하여 해양 생태환경 보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친환경·저탄소 및 순환발전의 경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양 생태환경 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탄저우(曲探宙) 국가해양국 과학기술사 사장(司长)에 따르면, 현재 해양산업이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7년 중국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 ▶ 이슈 포커스 : 2018년 '양화'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
- ▶ 동향 & 뉴스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해양경제 발전은 규모와 속도를 추구하는 발전 패턴에서 질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패턴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해양 과학기술도 과거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서 혁신을 통해 변화를 이끄는 역할로 바뀌고 있다.

취탄저우 사장은 "고품질, 고효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양 표준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국가해양국은 400여항의 해양 표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사는 다음 단계에서 해양 과학기술 혁신을 새로운 동력으로 하여 해양표준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최적화시킬 계획이다. 취탄저우 사장은 "우리는 중국만의 독자적인 해양 표준체계를 수립하고, '일대일로' 건설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8. 3. 12.>